

남구, 취약계층 '화상영어 학습지원 사업' 확대

대상자 지원 기준 '초3→초1' 낮춰
월 수강료 3만5000으로 상향 지원

광주 남구는 관내 취약계층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화상영어 학습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8일 남구에 따르면 화상영어 학습지원 사업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문화교육 특구 특화 사업의 하나로, 매년 관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의 학생들과 일반 주민들의 영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구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다

문화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과 함께하는 화상영어 학습 지원 기준을 대폭 낮추고, 수강료도 상향 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게 지원하던 것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원하고, 매월 수강료 지원 금액도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화상영어 학습 신청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참여세상 또는 남구청 원어민 화상영어 홈페이지(ginamgu.inetstudy.co.kr)를 통해 하면 된다.

매월 수강료는 원어민 강사와 1대 1 또는 1대 4 방식, 주 2~3회 학습 시간에 따라 최소 3만

5000원에서 최대 8만9000원이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에는 매월 수강료 3만5000원을 지원한다. 일반 주민은 수강료 전액 본인 부담이다.

화상영어 학습지원 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교육체육과(062-607-2412) 또는 화상영어 상담센터(1899-3430)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자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 회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영어 학습지원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관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의 자녀 603명에게 화상영어 학습을 지원했으며, 이 기간 화상영어 학습에 참여한 일반 주민은 20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서구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등

광주 서구가 '2023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8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 접수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31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구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옥외 간판교체, 내·외

부 인테리어 등 업소당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까지, 홍보·마케팅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점포경영 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개선 컨설팅사업을 연계해 주고 자부담 비용을 지원한다.

서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시설개선 75개소, 마케팅 50개소, 컨설팅 50개소 총 175개 업체를 선정해 점포 시설개선비 및 홍보·마케팅비, 경영개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구 경제과 관계자는 "올해는 온라인 및 배달 판매 증가 등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홍보·마케팅 지원책을 마련했고 시설개선지원 점포 수도 확대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매출액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서구 관내 소상공인은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62-360-7162)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혜인 기자

은봉희 남구의원 "통합형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광주시 남구의회 은봉희(사진) 의원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유아 관련 돌봄시설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촉구했다.

은 의원은 "인구구조와 가족패러다임의 변화로 돌봄의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책임만은 아니며 돌봄의 확대는 우리 남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과제 44호 뿐만 아니라 민선 8기 광주시에서도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남구에는 돌봄의 영역



인 영유아·아동·청소년·노인 등 이중에서도 특히 영유아 관련시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를 언급하며 "남구도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형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포용적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며 "빈틈없는 육아통합돌봄 보육환경이 조성돼 돌봄복지에 사각지대 없는 남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동구, 야생 들개 포획 활동 강화... 주민 보호 안전관리 총력

광주 동구는 최근 중심사·지산유원지 주변 잇단 야생 들개 출몰에 따른 주민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 강화 및 본격적인 포획 활동에 나섰다 8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부터 야생 들개 출몰로 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져 효율적인 포획체계를 위해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동구 소방서와 협력해 합동 포획단을 구성·운

영하고 총 31마리를 포획했다.

올해부터는 포획단 인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보강하고 포획 펜스·틀 등 장비 추가 설치해 야생 들개 11마리를 포획, 광주시 동물보호소로 인계해 보호 중이다. 또한 동물 유기로 인한 반려견의 야생화 방지를 위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한 동물등록 강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인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야생 들개는 포획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냄새를 기억하고 피할 정도로 예민하고 야생성이 강하다"며 "유기견, 야생 들개를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소방서, 구청 등 유관기관에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

북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광주 북구는 구직 청년들의 취업활동을 돕기 위해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은 지난해 처음 시행해 511명에게 2700만원을 지원,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북구는 올해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해 1000명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거주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다. 응시료 지원 자격시험은 어학시험 5종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다. 내달부터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544종까지 응시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개인이 시험응시를 위해 실제 납부한 금액이며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2회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시험에 응시 후 북구청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성현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